

2017.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1.17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철상, 박정훈,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6	-	1	12	-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8	4	-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건	6건	1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재방송 시간대 시청자들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에 해주길	특집 다큐 1, 2, 3부 재방송시간대를 저녁 6시 시간대에 편성	1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모니터 배경화면 주제에 맞게 편집해서 올려놓길	1/22 충청 교통중심지 1/29 대선정국 설민심은? 등 시사토론 프로그램 배경화면 주제에 맞게 편집	1월
교양	토크프로그램(토크&조이) 출연자 다양한 경력 지닌 출연자 섭외, 자료화면 풍성하게	1/22 거짓말연구가 김형희, 1/29 레저경영연구소 최석호 2/5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등 출연 자료화면 삽입	1,2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주제 폭넓게 넓혀야	1/22 충청 교통중심지 1/29 대선정국 설민심은? 2/5 반기문 불출마, 대선정국 향방 등 매주 다른 주제로 방송	1,2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의 야외구성물 자막 표기 오타 교정, 적절한 자막처리도 필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전국이 보인다 등 교양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자막 표기	1월
보도	특정 현안 문제(탄핵정국 등) 필요시 중계차 현장 배치	뉴스데스크 1/6, 1/13 중계차 연결 뉴스 진행	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5.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특집 다큐멘터리는 나름의 의제 설정을 통해 지역민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사명의식을 일깨우는 등의 몇 가지 소명의식을 갖고 출발한다.</p> <p>대전MBC에서 제작한 ‘백제 세계를 품다’는 역사 유산을 그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철저히 보존하고 있는 해외 사례의 현지 취재를 통해 우리 역사 유산의 보존, 관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 했고 ‘화이트 골드, 400년의 여정’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도자기 산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앞서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 도자 예술의 나아갈 길을 적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이 두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있는 해외의 선진 사례들의 현지 취재, 제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p> <p>최근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때때로 지역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최근의 다큐 제작 추세를 보면,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에 편승해 해외 제작 비중이 늘어나면서 로컬리즘이 글로벌리즘에 크게 밀리는 현상이 일상화 된 듯한 느낌이다. 로컬리티를 방송의 덕목으로 여기는 지역사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의 조화’ 중앙 방송사와 차별화된 제작 방식은 지역사의 화두가 돼야 한다. 그리고 특집 다큐멘터리는 제작 물량의 특성상 대부분 2부작이나 3부작으로 편성되는데, 로컬사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의 제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다 특히 3부작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시청자의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집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2부작으로 제작했으면 싶다(김학선).</p>	<p>좋은 지적이다. 지역 방송사의 화두는 ‘로컬성의 구현’이다. 작년에 제작한 ‘화이트골드, 400년의 여정’ ‘백제, 세계를 품다’는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유통에 역점을 둔 작품이라 로컬리티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다.</p> <p>올해는 로컬리즘에 보다 충실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의 국민화가 장욱진 화백의 탄생 100주년 맞아 ‘동심의 화가, 장욱진(가제)’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방송되는 라디오 드라마 ‘그 이름, 윤봉길(가제)’ 에듀힐링 프로젝트 ‘학교, 행복을 꿈꾸다’ 등 로컬리즘을 구현할 다큐멘터리를 준비중이다. 많은 기대와 애정을 바란다.</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주간뉴스브리핑 코너에 16일 저녁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해 주었다.</p> <p>더 이상 대전과 충남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 인 것 같다. 그렇다면 대전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자력연구소가 있는 대전은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에 ‘아침이 좋다’ 에 제안을 드리자면 주부들에게 원자력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안전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입장을 충분히 인터뷰하여 시청자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면 좋겠다(강은혜).</p>	<p>불행히도 대전은 원자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기대와 달리 제 목소리를 못내는 상황이다. 원자력 안전문제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어 ‘시사플러스’에서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화 하겠다.</p>			
<p>기타</p>	<p>대전MBC와 코이카가 공동 주최했던 청년 해외 일자리찾기 프로젝트 코이카박람회를 작년 상반기에 개최하였던 것 같은데 참 의미 있고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다. 이번에는 계획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고민 해주면 좋겠다(강은혜).</p>	<p>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다. 작년에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아쉽다. 아직 미정이다.</p>		○	
<p>보도</p>	<p>시국관련 촛불집회를 어떻게 제작, 방송했는지 대전MBC 보도의 특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p> <p>1.대전MBC 보도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일의 경우 다른 방송사가 기자 현장 리포트를 할 때 스튜디오 앵커 진행 ○현장을 연결하거나 현장 중계한 보도 발견할 수 없었다. 11월 19일의 경우 우리 지역 다른 방송사, 다른 지역 MBC들은 모두 중계차를 연결해 현장 보도하였다. ○매회 1회 보도로 대응하거나 휴일 스케치 보도에 촛불집회 내용 종합해 보도한 것은 복수 아이টে으로 보도한 다른 방송사와 비교된다. ○대부분 집회 소식 및 참여한 시민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2016.12.24은 크리스마스 이브 스케치에 촛불집회 함께 보도. 총 1분 51초 보도 중 촛불집회 소식은 20초였다. 크리스마스 건양대 병원 아동 방문한 산타보도. 병원 입원 아동 초상 노출 보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월 31일은 재야의 종, 새해 해맞이 등과 함께 촛불 보도. 총 2분 11초 보도 중 촛불소식은 	<p>보다 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다.</p> <p>올바른 지역 의제 설정을 위한 지역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현장 취재에 임할 계획이다.</p> <p>지역 주요 이슈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도국 내 모든 기자가 총력을 다하고 있고,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뉴스를 제작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p>		○	

23초. 2017년 1월 7일은, 새해 첫 주말 스케치와 풋볼 함께 보도. 2분 15초 중 풋볼 관련은 40초였다.

○7명의 기자가 11회 보도했다. 이교선 1회, 신원식 1회, 김윤미 2회, 문은선 2회, 이승섭 2회, 안준철 1회, 최기웅 2회 등이었다.

2. 다른 방송사 보도 특성

○11월 5일 보도부터 스튜디오가 아닌 기자가 보도했고, 부산MBC의 경우 방송 중 현장 기사를 연결해 보도하였다.

○11월 19일의 경우, 우리 지역 두 방송사, 다른 지역MBC모두 현장 중계차를 연결해 현장 보도하였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집회 현장 분위기 및 참석자 등의 아이템 외에 지역 종교단체의 풋볼관련 성명 등을 별도의 아이템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집회 전날 보도의 경우, 다른 방송사 중 일부는 행진 경로를 지도로 표기하는 등 다음 날 집회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이나 보수단체의 동정 등을 전하기도 했다.

○가장 특징적인 방송은 광주MBC인바, 많게는 5개 아이템으로 구성을 하였다. 흑산도, 거문도 등 방송권역의 최외곽에서 진행된 집회 소식을 참여자들의 영상을 제공받아서 뉴스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 인터뷰 숫자를 늘리거나 현장 중계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3. 의견

○주최자 및 주장 내용을 떠나 다수의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연속된 지역 집회는 지역 방송사의 존재를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거주 시민의 3-5%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집회는 더욱 더 지역방송사, 공영방송사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현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집회의 의미를 해석 평가하는 별도의 아이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방송권역인 세종시 집회 현장에 현장 중계차 파견을 통한 현장 보도의 필요성 큰 사안이라고 본다.

○취재지역의 광범성, 취재권역 내 다수 관공서등을 감안한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이승선).

<p>교양</p>	<p>허참의 토크&조이(1월 22일)에 바디랭귀지 김형희씨를 초대하였다. 작년과 다르게 앉아서 토크쇼를 시작하는 게 아닌 게스트 혼자 강의하듯이 설명 후 앉아서 토크쇼를 진행하던데 이 부분은 게스트가 자유롭게 말함으로써 긴장감 해소 등 새로운 변화를 준 듯싶다. 거짓말을 할 때 단서들을 PPT 화면으로 나타내 주었는데 그에 맞게 잘 설명을 해 주었다. 김형희 소장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한 사람은 약 4조원대의 사기를 친 사기꾼 조희팔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의 방송자료를 활용하며 거짓말의 단서를 분석해 주었는데 아주 적절한 예시였던 것 같다. 바디 랭귀지의 거짓말 부분을 주제로 방송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성정모).</p>	<p>칭찬에 감사하다. 저희 제작진은 항상 시청자에게 유익한 인물의 섭외를 통해 쉽게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통해 시청자에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라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p>			
<p>교양</p>	<p>1월 19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겨울 제주를 소개하였다. 사우스카니발 밴드와 함께 신나는 노래로 시작한 제주의 생활이 아주 궁금했다. 도입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간추려 설명해준 것이 이해를 쉽게 도왔다. 먹방 프로그램이 준비한 요즘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끔 제주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음식으로 잘 소개를 해 주었다. 또한, 실내스포츠의 글램핑장 등을 소개해줌으로써 최근 유행 중인 트렌드에 걸맞게 방송이 되었다. 코스를 돌아볼 때마다 각 코스의 대표님을 만나 직접 설명을 해줌으로써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고 설명없이 영상만 내놓으며 출연자들만 즐기는 여타 다른 프로그램 같지 않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고려한 듯싶다. 다만, 사우스카니발 밴드답게 여행지에서 신나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하는 여행코스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출연진에 따라 약간의 조율을 해 방송을 해 주면 더 신나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성정모).</p>	<p>‘테마기행 길’은 지역MBC 9개사가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10여 년 이어온 장수 프로그램이다. 초기엔 지역의 멋과 맛을 주제로 한 기행 로드 다크로 출발했지만 수 많은 회의를 통해 테마가 있는, 그리고 여운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하였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토록 정진하겠다.</p>	○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구성흐름을 보면 다양한 코너를 MC와 패널들이 서서 1시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많은 정보를 서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불안해 보인다. 앉아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청자들</p>	<p>개편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13년 된 프로그램으로 예전엔 앉아서 진행한 적도 있었다. 현재의 서서 진행이 생기와 활력을 시청자들이 느낀다는 판단하여 선택한 결정이다. 다음 개편 때 진행 형식에 대해 고민하겠다.</p>	○		

	에게 편하게 보이지는 않을까?(이상진).			
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선주자에 매스컴이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서는 아직 대선주자 관련 취재물이 다소 미흡하다. 대선주자 관련 내용을 가치를 두고 보도해주길 바란다(성정모).	지역 대선주자 동향을 중심으로 대선 관련 보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을 찾는 대선주자들의 동향에 대해 더욱 철저히 보도할 계획이다.		
보도	탄핵정국으로 들어오면서 과학분야 뉴스가 적다. 과학분야의 뉴스를 발굴, 적극적으로 보도 해주길 바란다(정민근).	‘글로벌 총칭’이라는 타이틀 아래 과학성과에 대한 보도를 기획 중이다. 앞으로 과학 관련 뉴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활력이 있고 정보성이 있어 시청자들에게 유의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행자와 리포터 특히 리포터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소 가볍게 진행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 개그맨 같이 가볍게 진행하는 것 보다는 품격을 갖추고 진행했으면 한다(정민근).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진행이 가볍다는 인상은 공감한다. 아침이라는 상황에서 활력을 시청자들이 느끼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앞으로 경쾌하되 품격있는 진행이 되도록 진행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	○	
보도	몇몇 언론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는 처음으로 140km/h가 적용이 되고 이를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설계속도 한도를 140km/h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전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도로로 만들어지며 국토부와 도로공사, 경찰청 등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140km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1월 22일). 그러나 이날 당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120km/h이며 설계속도 140km/h 상향 여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여론을 의식해 발 빠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언론들이 팩트 체크 없이 베껴 쓰기를 한 결과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진의여부를 떠나 적어도 국토부의 확인을 거치기라도 했다면 뉴스의 보도 내용은 위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장백기).	좋은 지적 감사드린다. 보다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팩트 체크에 더욱 노력하겠다.	○	
보도	지난해 연말과 새해 연초부터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대형화재로 인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 사	각종 재해 위험에 대비한 현장 고발성 보도를 강화하겠다. 뉴스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	

	<p>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마침 대전MBC 뉴스데스크(1월 16일, 시장 곳곳에 도사린 화마의 위협)에서도 시의적절한 때, 우리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 현장 점검 취재와 더불어 충실한 내용으로 보도를 내보냈다고 본다.</p> <p>화재감지기 오작동 여부,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있는지 여부와 가스 충전여부, 비상구 유도등 등 화재 취약점 점검을 현장감 있게 내 보내 일반 시청자들도 한번쯤 화재를 재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대전·충남 시장점포의 소화기불량이나 미설치비율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의 시급성을 알려주었다고 본다(장백기).</p>	<p>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	---------------------	--	--	--